

노인 주거·복지·보건 원스톱서비스...만족도 96%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성공 모델로 치켜세운 장성 누리타운은

“타 지자체도 취약계층 발굴 주거정책 적극 추진해야”

지난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해 공공 실버주택 성공모델이라고 추켜세운 '장성 누리타운'은 어떤 곳일까? 노인 주거·복지·보건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현대식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전남 김현미 장관은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건립된 공공실버주택 '장성 누리타운'을 찾았다.

김 장관은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장성 누리타운은 준공 1년 만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고령자 주거복지정책 등이 (장성군처럼)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각 지자체가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 확보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 누리타운은 주거·복지·보건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현대식 노인복지주택이다. 지난해 3월 준공 이후 공공실버주택 성공모델로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누리타운은 고령의 입주자를 배려한 안전 설계를 통해 2019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본인증'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 장성군이 '누리타운 입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누리타운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 평가가 96%에 달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누리타운은 애초 장성군의 경우 사업 대상지가 아니었다.

2015년 국토부의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는 광역자치단체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성군이 농어촌지역 고령화 심각성을 적극 알리고 10여 차례 건의 끝에 사업 대상지의 확대를 이끌어냈다.

이듬해 사업공모에서 광주·전남 최초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다른 사군의 사업 잔액을 추가해 최초 사업량(100세대)보다 1.5배 많은 150세대를 확보했다. 건축비 164억원도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역 어르신께 따뜻한 방 한 칸 마련해 드리는 것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자 복지”라고 강조하면서 “누리타운과 같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길 바라는 주민들이 많다”고 건의했다.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건립된 장성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을 찾아 시설 운영과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장성군 제공>

이날 김 장관은 누리타운 방문에 앞서 장성군으로부터 공공실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보고 받았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급식 대체식 지급과 입주인 보호 방안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애로 사항도 들었다.

김 장관은 장성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해외입국자 귀가 교통편 지원, 저소득층·고위험군 주민 마스크 지원, 택시종사자 긴급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 등산객 안전 위해 제봉산 등 6곳 숲길 정비 목교 설치·노후 데크 교체 작업

장성군은 봄 행락철을 맞아 늘어나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다음달까지 등산로를 일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숲길 정비 대상은 제봉산, 불태산, 태청산, 성미산 등 지역 6개 산이며, 총 정비 구간은 10.8km에 이른다.

노후 데크는 교체하고 출렁다리도 보수한다. 또 등산로의 로프를 정비해 산행 시 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또 이동이 불편한 지역에는 소규모 목교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인다. 안내판 및 이정표를 실상에 맞게 교체하고 편의시설 정비도 병행한다.

장성군은 올해 장성호 수변길 입구에 대나무숲길을 개통했다. 교목약수 등 계단 이용이 어려운 방문객들을 위해 경사로 없는 숲길로 조성해 호평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돼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성호 등 자연으로 향하는 발길이 늘고 있다. 장성군은 수변길 코로나19 예방초소를 설치해 예방수칙 전파와 손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혼인신고만 해도 5년간 1000만원 드려요”

결혼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

화순군이 인구정책의 하나로 청년세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화순군에 혼인신고를 하면 5년 동안 1000만원을 지원한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청년세대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최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 결혼장려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개정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어 지원받는다.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야 결혼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혼자는 대상이 아니다. 2020년 4월 10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1년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으로, 5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급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비혼·만혼 등 결혼을 꺼리는 청년세대의 혼인을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관방제림을 따라 줄지은 담양 국수의 거리.

화순군, 55억 들여 '생태숲 가꾸기'...조림지 등 총 3640ha 식재

화순군이 올해 55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숲 가꾸기'에 나선다.

화순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양질의 목재 생산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총 3640ha를 대상으로 조림지 가꾸기(2640ha), 어린나무 가꾸기(600ha), 큰나무 가꾸기(400ha)를 시행한다.

또, 산림 일자리 창출과 자원화를 위해 36명의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을 운영한다. 산물 수

집단은 주요 도로변의 잡초와 덩굴 등을 제거하는 활동을 한다.

6명의 숲 가꾸기 패트rollers를 상시 운영해 각종 산림 피해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예방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진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숲 가꾸기를 통해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군민과 탐방객들에게 더욱더 다양한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태 기자 byj@kwangju.co.kr

담양 '국수의 거리' 차량통행 제한...쾌적하게 드세요

담양의 관광명소인 '국수의 거리'가 지난 1일부터 차없는 거리로 탈바꿈했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앞으로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국수의 거리 150m 구간의 차량운행을 통제한다. 통제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관방제림을 따라 줄지은 담양 국수의 거리는 오

래 전 죽물시장을 찾은 상인이나 죽세공들이 형성했다. 나무 밑 평상에 앉아 국수를 먹으면 눈과 입이 모두 즐겁다.

담양군 관계자는 “국수의 거리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차량통행 제한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안내판 설치 등 홍보활동을 통해 운영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